



HOME 전북 교육/학교 더블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국외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송동호 기자

승인 2018.10.19 17:31



[KNS뉴스통신=송동호 기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 교수이자 종자생물공학센터(Seed Biotechnology Center) 연구 분야 책임자인 앨런 반 데인즈(Allen Van Deynze) 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의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번 초청 세미나는 농생명 관련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100여명 참석했다.

Allen Van Deynze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고유작물 컨소시엄(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과 "식물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였고,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이번 국외 농생명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농생명 관련 교수와 학생들이 농생명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에게 농생명 유전체 분석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송동호 기자 ksbgsong@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홈](#) > [뉴스](#) > [전국](#) > [전북](#)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국외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1일 (일) 09:40:06

조판철 기자 ✉ pcho9293@gukjenews.co.kr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 교수이자 종자생물공학센터(Seed Biotechnology Center) 연구 분야 책임자인 앨런 반 데인즈(Allen Van Deynze)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의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초청 세미나에는 농생명 관련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100여명 참석하였다.

Allen Van Deynze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고유작물 컨소시엄(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과 “식물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였고,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이번 국외 농생명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농생명 관련 교수와 학생들이 농생명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에게 농생명 유전체 분석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국외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강기운 등록 :2018-10-19 18:38:39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 교수이자 종자생물공학센터(Seed Biotechnology Center) 연구 분야 책임자인 앨런 반 데인즈(Allen Van Deynze)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의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초청 세미나에는 농생명 관련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100여명 참석하였다.

Allen Van Deynze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고유작물 컨소시엄(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과 “식물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였고,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이번 국외 농생명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농생명 관련 교수와 학생들이 농생명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에게 농생명 유전체 분석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은 아프리카 고유의 101가지 식량 작물들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품종 육성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 전문가에게 교육하는 세계적 협력체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Copyright NewsWa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HOME 대입 대학뉴스

군산대,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

김하연 기자

승인 2018.10.19 16:22

호수 0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군산대는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가 17일과 18일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 교수이자 종자생물공학센터(Seed Biotechnology Center) 연구 분야 책임자인 앨런 반 데인즈(Allen Van Deynze)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의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초청 세미나에는 농생명 관련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Allen Van Deynze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고유작물 컨소시엄(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과 "식물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였고,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이번 국외 농생명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농생명 관련 교수와 학생들이 농생명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에게 농생명 유전체 분석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사진=군산대 제공

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광주.전북.전남.제주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93)

군산대, 해외 전문가 초청 농생명 세미나 개최

👤 이윤근 기자 | ⌚ 승인 2018.10.22

전북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 교수이자 종자생물공학센터(Seed Biotechnology Center) 연구 분야 책임자인 앨런 반 데인즈(Allen Van Deynze) 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의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각각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농생명 관련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청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종자생물공학센터 연구 분야 책임자인 Allen Van Deynze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고유작물 컨소시엄(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과 식물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최동수 군산대학교 교수는 “이번 국외 농생명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농생명 관련 교수와 학생들이 농생명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에게 농생명 유전체 분석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근 기자 기자

[홈](#) > [뉴스](#) > [뉴스](#) > [교육](#)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국외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8년 10월 19일 (금) 16:19:46

김주원 기자 ✉ bhaum2730@naver.com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국외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 교수이자 종자생물공학센터(Seed Biotechnology Center) 연구 분야 책임자인 앨런 반 데인즈(Allen Van Deynze) 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의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각각 개최됐다. 초청 세미나에는 농생명 관련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100여명 참석했다.

Allen Van Deynze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고유작물 컨소시엄(The African Orphan Crops Consortium)*”과 “식물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고,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이번 국외 농생명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농생명 관련 교수와 학생들이 농생명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에게 농생명 유전체 분석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 투데이안(<http://www.today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